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values of police officer

한상암, 정덕영*
원광대학교, 경동대학교*

Han Sang-Am, Jeong Duke-Young*
Wonkwang Univ., Kyungdong Univ.*

요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한 조직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 조직의 문화 역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Ott(1989)는 조직행태에 있어서 개인적인 가치관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Schein(1985) 역시 이점을 강조하였다. 경찰조직도 역시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상당한 정도까지는 경찰조직의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개개 경찰관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경찰조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신념, 정책선호성향,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입직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가치들은 개개 경찰관의 입장에서 시행하는 재량적인 선택의 측면과 관련된 행태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Rokeach에 의하여 미국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가진 가치관의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개발된 가치관 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Through contemporary researches on policing, individual employees in law enforcement agencies has gained more and more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olice organization managers. Unfortunately an important but largely ignored area of current research on individual police officers concerns the value orientations obtaining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And during last five decades or so, no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issue. Studying individual value orientations is important because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indicates that particular patterns of value orientation predict world views and hence can in turn predict behavior at the workplace and behavioral predispositions on salient social issu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intended to answer these issues.

-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value orientations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 (2) Is there any relationships between the specific groups and the value orientations among them.

I. 서론

최근의 경찰학 연구분야에 있어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경찰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로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Hageman, 1978, 1982; Wolpin 등, 1978; Beehr 등, 1995), 경찰관의 직무만족관련 연구(Griffin 등, 1978; Buzawa, 1981, 1984; Dantzker, 1992, 1993), 경찰관의 냉소주의(Regoli 등, 1979), 그리고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Hochstedler와 Dunning, 1983; Wycoff와 Skogan, 1994) 등이 있다. 행태과학적 시각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와 같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로 인하여 경찰조직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었으며 특히 경찰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경찰조직구성원들의 개별적인 Wellbeing과 인간다운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 확대시켜 주

었다.

개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가치관의 유형이 세상에 대한 한 개인의 견해를 예측해 낼 수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한 개인의 태도와 직장에서의 행태를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Rokeach, 1973) 즉, 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가치체계와 보편적인 문화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Ott, 1989; Trojanowicz and Bucqueroux, 1990) 또한 개인적인 가치는 경찰조직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Lipsky, 1980) 개인들은 경찰조직에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인 신념, 정책적 선호, 그리고 내재된 태도를 가지고 입직한다.[1] 따라서 경찰조직의 문화는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관의 범위와 강도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Zhao et. al. 1995; Wasserman and Moore, 1988). 이 논문의

목적은 Rokeach에 의하여 미국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가진 가치관의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개발된 가치관 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Rokeach의 가치관 이론

1. 가치체계의 개념

인간의 가치체계의 유형을 설명하고 그러한 가치체계가 개인의 행태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이론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Milton Rokeach의 가치관이론이다. 요약하면, Rokeach는 독특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규범과 행태가 종종 보편적인 가치관 중 특정한 유형에 결합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Rokeach, 1973).

Rokeach는 가치를 “특정한 행동 유형 혹은 존재의 궁극적 상태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2] 이러한 개념정립에 기초하여, 가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 (1) 선호하는 것에 대한 인식
- (2) 감정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다.
- (3) 실제로 동작되는 경우 특정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행태적인 구성요소가 있다.[3]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의 표현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Rokeach는 인간에게 있어 최우선적 관심을 유발하는 가치의 전체 수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가치들은 상대적인 중요성의 연속선상에 배열되는 선호하는 행동양식 혹은 궁극적인 상태에 관한 믿음의 상존하는 체계(조직화)인 가치체계에 배열될 수 있다.[4]

2. 가치체계의 중요성

상대적 중요성에 근거한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먼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범위에서 유사한 가치체계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철학을 선호하도록 하며 독특한 투표성향을 형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과정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한다.[5]

3. 가치체계의 특성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가치체계는 시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 이는 한 개인에 의하여 선호되는 가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 선호에 있어서의 변화 즉 가치전환(Value Shift)은 매우 느린 과정이며, 한 개인의 가치체계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구조적인 욕구까지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평화라는 가치는 20년 전의 냉전의 시대에 비하여 전쟁의 위협이 현저하게 줄어든 현재에는 덜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며, 세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치변화는 특별한 계기들 혹은 행위들에 의하여 유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Rokeach에 의하면 “변화의 과정은 직무상에서의 유도기제(inducing mechanism)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더구나 인간의 가치의 변화는 인간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다.”[6] 다른 말로하면, 뭔가 핵심적이고 특별한 것이 개인의 가치 변화가 유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촉매로서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사기업들에서 총질관리(TQM)의 소개와 채택은 이러한 유형의 촉발되어진 변화를 의미한다.(Anderson et. al., 1994; Spencer, 1994).

4. 가치체계의 구성요소

Rokeach는 인간의 가치체계가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두 가지 유형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들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수단적 가치들은 궁극적인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활용되어진 수단의 측면에서 개인적인 선호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Rokeach는 그의 경험적인(실증적인) 연구에서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를 나타내 주는 18가지의 가치항목과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를 측정할 수 있는 18가지 항목을 발견해 냈다. 이러한 설문조사 도구는 수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III. 선행연구의 검토

1970년대부터 Rokeach척도가 경찰학의 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68년도 중서부의 중간규모 경찰관서(15만명 정도의 인구규모)에서 153명의 백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Rokeachd와 그의 동료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과 비교하여 경찰관들이 상대

적으로 독특한 가치관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 경찰관들은 일반시민들에 비하여 평등성을 현저하게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며 Rokeach와 그의 동료들은 “평등성 항목이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정치적 보수성의 예측 지표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다.[7].

경찰관들의 보수적인 정치성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Wilson(1967)은 시카고 경찰관들이 사회적 변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음을 발견해 내었으며, Skolnick은 캘리포니아 경찰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Goldwater 유형의 보수주의적 성향이 경찰의 정치적 정서적 성향이었던”고 결론지었다.[8] Bayley와 Mendelsohn(1969)는 Denver 경찰관들이 지역사회 전체에 비하여 좀더 보수적이었으며 공화당 지향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찰관들의 연령은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관계가 없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경찰의 보수적인 성향을 설명해주는 것은 모집후의 사회화 과정보다는 초기 선발과정이란 점을 발견해 내었다.[9]

Rokeach와 그의 동료들(1973)은 재직연수라고 하는 경찰조직에서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을 활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는 경찰서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찰관들 사이에 가치유형에 있어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10]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관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 매우 친밀한 집단으로 파악 될 수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Sherrid(1979)는 뉴욕 도심지역에서 근무하는 384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Rokeach의 궁극적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그는 Rokeach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궁극적 가치지표들의 배열 순위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경찰관들은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배열하였다. 그러나 Sherrid는 경찰관들이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6개월 동안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변화되지 않았던 반면에 평등성에 대한 집단적 우선순위가 16번째에서 11번째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11]

South Carolina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에 근거하여, Griffith와 Cafferty(1977) 역시 Rokeach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경찰관들이 개인적인 문제들에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예를 들면, 자이존중과 가정의 안전), 사회적 가치들(예를 들면, 사회적 인식 Recognition)에 낮은 순위를 부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12] Teahan(1975; 그리고 Lefkowitz, 1975 ; Burbeck and Furnham, 1985 참조)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5년 이상, 일년 이상 5년 미만, 1년 미만이라는 경험에 근거하여 분류된

세 집단의 경찰관들은 가치에 있어서 아무런 현저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들은 입직전에는 아무런 사회화 현상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경찰관과 시민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거나(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입직하기 전에 걸러지는 경향이 있다.) 혹은 사회화 현상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거의 순간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최근에 Zhao et. al.(1998)은 Washington주의 경찰관서들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의 연구들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Rokeach et. al.(1971)의 연구결과들과 비교 연구하였다. 그들은 경력, 교육, 그리고 성별이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에 약간의 현저한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한 가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들 사이의 가치성향은 시간의 경과와 경찰관들 사이의 소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거의 지속적(변화가 없음)인 것으로 보인다.[13]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되었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경찰조직에서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언급된 지역적 그리고 관서 규모별 차이와도 상관없었다. 이는 궁극적 가치관의 순위를 검토하였던 Rokeach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행과정에서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Zhao et. al.(1998)은 1993년 중간규모의 경찰서 중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찰서 내의 경찰관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20년 전에 발표되었던 Rokeach et. al.(1977)에 의하여 연구되었던 널리 인용되어지는 연구와 비교하여 미국의 경찰관들 사이에 일반적인 가치체계의 측면에서 현저한 변화의 증거는 없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8개 경찰서에 대한 평가에서 Sadd와 Grinc(1994)는 지역사회 경찰을 지향하는 조직상의 변화과정에 경찰관들은 특히 저항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경찰관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의 전환에 저항하며,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때문이다.”[14] 더구나 Sadd와 Grinc(1994)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종종 자신들의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활동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IV. 연구방법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경감 이하의 경찰관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감 이하의 전체 경찰관집단을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관집단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선정할 경우 집단 전체가 가진 가치체계 전체적 특성에 대한 관찰과 측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찰관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단위로서 경감 이하의 경찰관 개개인을 관찰함으로써 경찰관집단 전체의 가치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6월부터 7월 사이에 무작위 표집으로 수집된 241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논문과 문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241매의 설문자료는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PSSwin ver. 1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빈도분포도(frequency table)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체 표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에서 표 6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경찰관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23명(92.5%)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오직 18명에 7.5%만을 구성하고 있어 우리 경찰이 아직도 남성의 직업임을 또한 여실히 보여주었다.

[표 1] 성별

	빈도	퍼센트
남자	223	92.5
여자	18	7.5
합계	241	100.0

조사대상자들의 계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순경이 35명으로 14.5%, 경장이 78명으로 32.4%, 경사가 84명에 34.9%, 경위는 43명에 17.8%를, 경감은 1명으로 0.4%를 구성하고 있었다.

[표 2] 계급

	빈도	퍼센트
순경	35	14.5
경장	78	32.4
경사	84	34.9
경위	43	17.8
경감	1	.4
합계	241	100.0

조사대상자들의 근무부서별 구성을 살펴보면 생활안전 및 지구대가 각각 47명과 43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비가 41명, 수사형사가 25명, 정보와 교통이 각각 19명, 경무 17명의 순이었다.

[표 3] 근무부서

	빈도	퍼센트
수사형사	25	10.5
생활안전	47	19.7
교통	19	8.0
경비	41	17.2
경무	17	7.1
보안	11	4.6
정보	19	8.0
지구대및치안센터	43	18.1
기타	16	6.7
합계	238	100.0

조사대상자들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이 81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는 49명(20.7%)이었다. 대학교 재학중 혹은 졸업자가 103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업자도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4] 최종학력

	빈도	퍼센트
고졸	81	34.2
전문대 재학중	3	1.3
전문대 졸	46	19.4
대학교 재학중	15	6.3
대학교 졸	88	37.1
대학원 졸(석사)	4	1.7
합계	237	100.0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22세에서 29세까지의 20대 연령층이 37명(17.5%), 30-39세의 30대가 101명(47.9%), 40세에서 49세까지의 40대 연령층이 61명(28.9%), 50세에서 59세까지가 12명(5.7%)이었다.

[표 5] 연령

	빈도	퍼센트
20대	37	17.5
30대	101	47.9
40대	61	28.9
50대	12	5.7
합계	211	100.0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경찰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먼저 재직기간은 22.7%인 48명이 1개월에서 5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동안 재직해 온 대상자는 59명(28.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8명(18.0%)였다. 또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0명(19.0%)이었으며, 20년 이상 경찰에 봉직해 온 경찰관도 26명(1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직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5년 미만	48	22.7
5년 이상-10년 미만	59	28.0
10년 이상-15년 미만	38	18.0
15년 이상-20년 미만	40	19.0
20년 이상-25년 미만	17	8.1
25년 이상-30년 미만	9	4.3
합계	211	100.0

V. 분석결과의 논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가치체계 중 궁극적 가치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6.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경찰공무원 중 66명(28.1%)이 가정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59명, 25.0%)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iffeth와 Cafferty(197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찰관들 역시 개인적인 문제들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존중(0명, 0%), 자존심(1명, 0.4%), 평등,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우정은 각각 2명(0.9%)만이 1순위로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행복과 국가의 안전을 1순위로 선택한 경찰공무원도 각각 30명(12.8%)과 23명(9.8%)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즐거움(21명, 9.0%), 성취감(11명, 4.7%)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찰관 역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경찰관이 개인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1979년에 뉴욕경찰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던 Sherrid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평등성에 대한 경찰관들의 응답에 있어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배열하였다. Sherrid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등성은 18가지 궁극적 가치배열에서 16번째로 응답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경찰관들 중 사회적 존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항목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조직문화 역시 외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는 경찰관 개인의 가치관과 행태의 집합이 경찰조직문화라는 점 때문이다.

[표 6] 궁극적 가치항목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도전지향적 생활		성취감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59	25.0	4	1.7	11	4.7	5	2.1	8	3.4

평등		가정의 안전		자유		행복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2	.9	66	28.1	7	3.0	30	12.8

마음의 안정		국가의 안전		구원		사회적 존경		지혜로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9	3.8	23	9.8	3	1.3			4	1.7

진실한 사랑		즐거움		자존심		진실한 우정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2	.9	21	9.0	1	.4	2	.9

VI. 결론

경찰관들은 다른 직업집단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와 인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차이점들이 그들이 법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방법(manner)을 결정하게 됨을 보여주는 수많은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 있어 경찰의 역할 역시 과거의 법집행 중심에서 그 지역의 시민들을 관리하고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15] 이와 같은 경찰활동상의 변화는 괄목할만한 사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Cordner와 Trojanowicz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경찰을 “범죄의 투쟁자”에서 중요한 지역사회 개선의 주창자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16] Lewis et. al.(1984)는 지역주민의 우대관계의 감소를 역전시켜주며 공공의 안

녕을 되찾기 위한 전략임을 주장하였다.[17]

이와 같은 경찰활동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찰의 조직 문화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찰관 개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경찰활동과 관련된 변화들은 다층면적이며, 지역사회 참여적이며, 전체 경찰기관이 모두 참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한 개의 주제로 집약되며, 경찰의 조직문화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노력의 시초로서 우리나라 경찰관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외국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 참고 문헌 ■

- [1] Muir, W., *Police: The Streetcorner Politicians*, p.267,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Brecci, M. and Simons, R., "An Examination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that Influenc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Disturbanc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15, 1987, pp.93-104
- [2] Rokeach, M., *The Nature of Human Values*, pp.5-7,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3] Rokeach, M. *The Nature of Human Values*, pp.5-7,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4] Rokeach, M. *The Nature of Human Values*, p.5,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5] Rokeach, M. *The Nature of Human Values*, pp.14-20,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6] Rokeach, M., "Including Change and Stability in Belief Systems and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1, 1985, p.164
- [7] Rokeach, M., Miller, M., and Snyder, J., "The Value Gap Between Police and Police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7, 1971, p.162
- [8] Skolnick, J. H., *Justice Without Trial: Law Enforcement in Democratic Society*, p.61, New York, Wiley and Sons, 1966.
- [9] Bayley, D. H., and Mendelson, H., *Minorities and the Police: Confrontation in America*, pp.157-158,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 [10] Rokeach, M. and Ball-Rokeach, S., "Stability and Change in American Value Priorities: 1968-1981", *American Psychologist*, Vol.44, 1989, pp.775-784
- [11] Sherrid, S., "Changing police values," in Spielberger, C., (ed.) *Police Selection and Evaluation: Issues and Techniques*, pp.167-176,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 1979.
- [12] Griffith, R.W., and Cafferty, T.P., "Police and citizen value systems: some cross-sec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 1977, pp.191-204.
- [13] Zhao, J., "Individual value preferences among American police officer: The Rokeach Theory of human values revisited",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1, 1998, pp.22-37
- [14] Sadd, S., and Grinc, R., "Innovative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An Evaluation of Community Policing Programs in Eight Cities", in D. Rosenbaum (ed.), *The Challenge of Community Policing: Testing the Promises*, p.35, Thousand Oaks, CA, Sage, 1994.
- [15] Webber, A.M., "Crime and Management: an Interview with New York City Police Commissioner Lee P. Brow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1, p.125
- [16] Cordner, G.W. and Trojanowicz, R.C., "Patrol", in Cordner, G. and Hale, D. (eds), *What Works in Policing?: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Examin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1992.
- [17] Lewis, D.A., Grant, J.A. and Rosenbaum, D.R.,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form: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Organization, Draft Final Report, Volume II*, Center for Urban Affairs and Policy Research,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1984)